

정(情), 체면(體面)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최상진 최인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 개념인 정(情), 체면(體面)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정(情)의 요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은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적으로 연약하거나 다정다감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 민감성과 관련된 체면척도를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 의식성 체면, 사회 격식성 체면으로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경로분석결과, 창피 의식성 체면과 자괴 의식성 체면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괴의식성은 신체적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情)의 요인 중 타인배려성과 체면민감성 요인 중 사회격식성은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최상진, 1997a). 특히 정(情)이라는 말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기본지향인 '우리성' 인간관계에서 생기며, 정(情)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이상적 상태로 한국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情) 인간관계의 원형은 가족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고, 가족같은 푸근함을 나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갈등과 반목, 오해, 미움 등의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a). 또 하나의 한국인들의 대인관계 특징은 사리(事理) 중심적이기보다 관계(關係) 지향적이며, 행위자체보다 행위의 이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최상진, 유승엽, 1996b; Choi & Kim, 1999b). 이처럼 한국인들은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시함으로 인해 여러

갈등이나 스트레스도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d;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Choi & Kim, 1999a).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심리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성을 탐구해 보는데 있다.

한국인의 정·우리성 인간관계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정(情)은 사람들간의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내적 경험속성이며, 동시에 관여된 두 사람 또는 사람들 간의 친밀·밀착의 정도를 기술하는 준거척도가 된다. 이처럼 정(情)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대표적인 심리특성이라 할 수 있다(김열규, 1986; 김재국, 1997; 최상진, 1997b; 최상진, 최수향,

1990).

한국인의 '정(情)'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상진과 그의 동료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a; 최상진, 유승엽, 1995; 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최수향, 1990; Choi, Kim & Kim, 1999)은 한국인에게 있어 정(情)은 오랜 기간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공동운명성), 두 번째는 상대를 자신처럼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아껴주는 마음),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해 격의 없이 느끼고 상호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허물없음성), 네 번째로는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내 것 네 것의 구분을 초월할 때(우리성 일체감), 끝으로 함께 오랜 시간이나 세월을 보냈을 때(동거역사성)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정(情)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며 중복적인 측면을 지니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김주희(1992)는 정(情)을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친근감과 애정을 동시에 의미하며,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정(情)은 사랑의 감정 같은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접촉과정에서 이슬비에 옷이 젖듯 잔잔하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적 감정 상태이다(최상진, 1997b). 따라서 정(情)의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그 지속 시간도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훨씬 길다. 이러한 정(情)의 특징은 바로 한국의 가족 관계를 대표하는 속성으로 정(情)의 심리 경험적 원형은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 구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의 인간관계 형태가 가정 밖에서의 사회 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적 정(情)인간관계이고 정관계는 우리성을 기본으로 한다(최상진, 1997b).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표상에 대한 연구에서 최상진 등(1990; 1993)은 '우리'라는 어휘에서 정(情), 친밀감, 푸근함, 상호수용 등의 감정적 연대감(連帶感)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됨, 동질감, 연대감, 동류의식 등의 의식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있어 '우리'는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정적(家庭的) 연대로 규정되며, '우리' 속에 있을 때 친밀감, 편안함, 상호수용 등의 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정(情)과 우리성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관계가 형성되면 정(情)이 개입되며, 정(情)이 들게 될 때 '우리의식'은 싹트게 된다. '우리'의 근처에 있는 심리적 표상(表象)은 '정(情)'으로서, 한국인의 '우리성'은 곧 합리적인 혹은 공식적 관계 속의 우리나라 서구적 사태 상황적 동질성에 기초한 우리가 아닌 탈(脫) 합리적 인간관계 속에서 정(情)을 바탕으로 한 개인간의 인간 지향적 연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Choi & Choi, 1994).

이를 정리하면 정(情)은 우리 관계의 현상적 경험 상태라면, '우리'는 정(情)이라는 현상적 경험에 대한 '관계성 인식체계'라고 볼 수도 있다(최상진, 1997b). 이렇게 볼 때 정(情)의 기본심리는 흔히 서로가 상대를 아껴주는 '마음'이며, 아껴주는 마음을 상대로부터 느꼈을 때 상대는 '남'이 아니라 '우리'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인의 정(情)과 우리의식은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한국의 가족관계적 특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최상진, 1997b;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a). 한국의 가정은 이성이나 의리보다는 정(情)으로 뭉쳐진 집단이다. 또한 개인보다는 '우리 식구'라는 동질성, 하나됨, 상호의존, 상호보호, 상호수용을 이상적 관계와 교류의 양식(mode)으로 삼는다. 따라서 한국인에게서는 동질성이 곧 '우리'이며 가족을 떠난 사람과의 우리성은 이러한 '가족성 우리'의 확대-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체면(體面) 민감성

한글학회가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에 체면(體面)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체면을 지켜야만 남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체면 의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임태섭, 1994, 1995; 최상진, 김기범, 1998; Choi & Kim, 1999c).

체면은 사회적 얼굴(social face)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사회적 자존심(social esteem)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나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체면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대우와 관련된 자존심(自尊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즉 자신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사람들은 바라며, 그렇지 않을 때 체면은 손상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체면 욕구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임태섭, 1994; 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체면(體面)은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김양희, 1994; 박기순, 1994). 이러한 체면은 한국인에게만 고유(固有)하게 존재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적어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빈번(頻繁)하게 관여되는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문화 심리 이해의 필수적이라 하겠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의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보면서 체면을 스스로 차리는 체면과 남이 세워주는 체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체면에는 친절보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식성 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대처 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고 주장하였다.

체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낮고 외부적 통제 소재를 갖고 있으며(최창호, 1993).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낮추는 언행을 하면 대인간 호감이 높아지고 처벌의 정도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체면 유지에 민감한 사람이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여성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진승범, 1995). 이처럼 체면은 서구와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지향적이며, 평등 지향적인 사회에서보다는 타인 의식적이고, 신분 지향적이며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심리 현상이며,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자리하고 있다(최상

진, 김기범, 1998; 최상진, 유승엽, 1992; Choi & Kim, 1992; Choi & Kim, 1999c).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Stress)는 '몸에 해로운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정의된다(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89). 14세기에 이미 고난, 곤경, 역경 또는 고통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15세기경부터 압력(pressure) 또는 물리적인 압박(physical strain)의 뜻으로 쓰여졌고 19세기에 이르러서 체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Lazarus, Folkman, & Gruen, 1985).

Morris는 스트레스란 우리가 대처(對處)하거나 견딜 수 있는 능력 밖의 갈등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이명주, 1993). 한편, 김홍규(1989)는 스트레스를 위협을 주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압력, 좌절, 갈등 및 불안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제반자극 조건(환경)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상태(건강)에 주어지는 힘겨운 부담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Selye(1956)는 스트레스를 어떤 요구에 대한 보편적인 신체적 반응이라고 했으며 이 개념을 Cannon(1932)은 위기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Quick과 Quick(1984)은 스트레스가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고 보면서 부정적 가치를 지닐 때 이를 역기능적 스트레스라 칭하고, 긍정적 가치를 지닐 때 순 기능적 스트레스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이종목, 1989).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초기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로 사용되었는데(Eisdorfer, 1981), Selye(1985)는 어떤 새로운 자극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응하려는 신체적 방어 의 틀, 즉 일반적 증후군(general adaption syndrome;

GAS)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based model of stress)의 개념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취급한다(Cox, 1991). 따라서 어떤 반응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은 동시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nnon(1932)은 스트레스를 추위, 산소부족, 저혈당 등의 조건하에서 생기는 항상성유지(homeostasis)의 장애라고 정의하였으며, Selye(1985)는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stressor)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라 정의했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 적응과 생리학, 해부학, 신경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최해림, 1986), 스트레스반응을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나 개인과는 무관한 비 특정 반응으로 보았다는 점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 반응과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을 구분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동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내린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으로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바로 이 개념이다(문성원, 1990).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based model of stress) 개념은 환경내의 자극특성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취급한다(Cox, 1991). Lazarus와 그의 동료들(1965)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거리가 자극(stressor)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척도(daily hassles scale)"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으로 파악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생활사건(life event) 접근법으로 Holmes와 Rahe(1967)은 전쟁, 급격한 문화적 변화, 직업상실 및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생활위기가 스트레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개인의 적응능력의 역치(threshold)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라고 보고, 생활사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43가지의 생활사건을 모아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생활사건을 객관적인 스트레스 지표로 볼 때 양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자극이나 자극의 결핍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아울러 생활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갖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등의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stress as an interaction)는 개인과 환경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으로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zarus 등은 어떤 환경적 사건도 개인의 지각이나 평가와 독립되어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Cohen & Lazarus, 1979; Lazarus, 1978, 1981)고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란 개인의 자원을 필요로 하거나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 또는 자극으로서의 개념, 상호작용과정 또는 매개체로서의 개념, 그리고 반응 또는 결과로서의 개념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서 중시되는 정(情)과 체면(體面)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탐구해 보는데 있다. 즉 정(情)의 구성요인이 신체 및 심리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한 분석(그림 1 참고)과, 체면 지키기나 세우기에 민감한 정도를 구분하는 체면 민감성의 구성요인이 심리 및 신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을 분석(그림 2 참고)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특수적 현상들과 스트레스와의 구조적 관계성을 탐구해 보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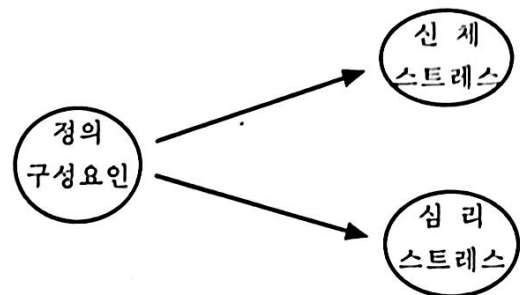


그림 1. 정의 구성요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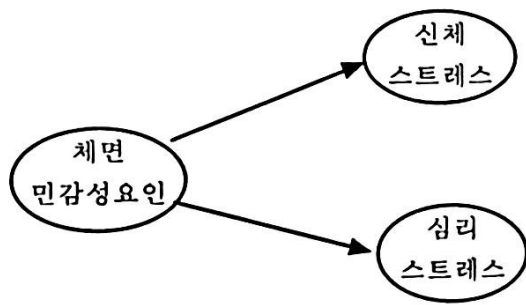


그림 2. 체면민감성 구성요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소재의 C 대학과 M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14명(남: 111명, 여: 103명)과 강릉시 소재의 4개 남·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230명(남: 115명, 여: 115명)등 분석에 적합치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44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7세(최소: 15세, 최고: 19세)였고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최소: 18세, 최고: 34세)였다. 조사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정(情)척도, 우리성 척도, 체면(體面)민감성 척도, 스트레스 척도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구성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情)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情)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이 많은 사람과 정이 적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서 임영식(1993)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아니다'에서 7='매우그렇다'). 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상호 고려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삭제하였고 최종 24문항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었으며, 요인의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전체 설명변량 46.85%, $\alpha=.87$). 제 1 요인은 문항 16, 27, 3, 21, 23, 9, 19, 26, 4번 등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적 연약성'이라 명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의 설명변량은 25.82% 이고, 신뢰도 계수는 .85로 양호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문항 15, 2, 10, 28, 6, 5, 1, 8, 29번 등이 포함되었고, '타인배려성'이라 명명하였다(설명변량 12.27%, $\alpha=.83$). 세 번째 요인은 문항 18, 20, 30, 24, 17, 7번 문항이 적재되었으며, '다정다감성'이라고 요인명을 부여하였다(설명변량 8.77%, $\alpha=.70$).

2) 체면(體面) 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면척도'는 체면 민감성에 관한 척도로서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199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면척도는 그 동안 연구된 체면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특성

표 1
조사대상

	남	여	합계
고등학생	115(25.9%)	115(25.9%)	230(51.8%)
대 학 생	111(25.0%)	103(23.2%)	214(48.2%)
전 체	226(50.9%)	218(49.1%)	444(100%)

표 2

정(情)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인간적 연약성	.809		
문항 16	.778		
27	.775		
3	.725		
21	.626		
23	.595		
9	.511		
19	.510		
26	.463		
4			
타인배려성			
문항 15		.704	
2		.673	
10		.671	
28		.654	
6		.638	
5		.633	
1		.632	
29		.564	
8		.531	
다정다감성			
문항 18			.811
20			.762
30			.548
24			.484
17			.452
7			.436
고유가	6.196	2.944	2.104
설명변량	25.82%	12.27%	8.77%
Cronbach α	.850	.830	.695

(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유승엽, 1992)과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체면척도(진승범, 1995; 최창호, 1993)를 참고하여, 문항의 수정 및 추가를 통하여 구성되었다. 처음에 포함된 문항은 총 27문항이었으나 C대학 대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체면과 관련이 없다고 제시된 2문항을 제외한 최종 2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7점(1= '전혀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 척도로 제시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고려하여 총 16문항만이 이후의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초 요인분석시 고유가가 1이상인 요인수는 4개로 나타났으나 처음에 문항을 선택할 때의 기준과 Scree plot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요인을 3개로 고정시켜 Varimax로 회전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에서 3요인이 설명하는 총 설명변량은 49.02%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제 1요인이 28.40%, 제 2요인은 12.53%, 제 3요인은 8.09%이었다.

제 1요인은 '남의 평가 의식',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 '남이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에 민감', '남의 눈치를 봄', '타인 시선을 의식' 등의 문항이 포함

표 3

체면(體面) 민감성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창피의식성 체면			
문항 20	.743		
16	.734		
17	.720		
18	.689		
10	.689		
자괴의식성체면			
문항 8		.665	
13		.662	
14		.617	
5		.592	
24		.552	
15		.498	
사회격식성체면			
문항 3			.749
2			.690
1			.668
4			.620
23			.599
고유가	4.543	2.005	1.295
설명변량	28.40%	12.53%	8.09%
Cronbach α	.820	.702	.704

되어 '창피의식성 체면'(Cronbach $\alpha=.82$)로, 제 2요인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낌', '부탁 거절당할까 봐 걱정', '위신 때문에 부탁을 망설임',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 '남들 앞에서 대답을 잘못해 당황해 본적이 있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위신 때문에 함'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자괴의식성 체면'(Cronbach $\alpha=.70$)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사석에서 교양 있게 행동하려함', '예절중시', '격식차림', '말신수 할까봐 조심', '대인관계에서 격식중시'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식성 체면(Cronbach $\alpha=.70$)으로 명명하였다.

3) 스트레스(Stress) 척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awte(1972)가 선별하여 사용한 20문항 가운데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한국 학생의 신체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2

문항 중 1~6번 문항까지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이며, 7~12번까지의 문항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심장 통증, 지속적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지속적 피곤, 불면 등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두려움, 불행과 우울, 수줍음, 주변사람들의 괴롭힘, 죽고싶은 충동, 근심걱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 역시 7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계수는 .83 이었고 신체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72,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신체적 스트레스에서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심장통증 .46, 소화불량 .46, 지속적 피곤 순 이었다. 그리고 불면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우울로 .69, 수줍음 .57 순 이었다. 자살 충동이 .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절 차

본 연구의 질문지 실시기간은 1999년 5월에서 7월까지 약 2개월간이었고, 연구자 및 연구 보조자들이 조사대상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학생들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 - 30분 정도이었다.

자료분석

회수된 질문지는 모두 468부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444명의 응답지를 분류하여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일반적 현황을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으며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을 사용하였고 회전은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척도들의 신뢰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정(情), 체면(體面)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량을 알아보려고 정(情), 체면(體面)의 각 하위변인들을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 차이

표 4는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의 차이를 t -검정한 결과이다. 체면(體面)의 하위 변인 중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의식성 체면 그리고 심리스트레스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p < .001$)를 나타냈으며, 정(情)의 하위변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p < .05$)과 신체스트레스($p < .05$)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간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정다감성($t = -4.67, p < .001$)에서만 여자 집단($M = 5.33, SD = .87$)이 남자 집단($M = 4.94, SD = .91$)보다

표 4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정(情), 체면, 스트레스 차이에 대한 t -검증

		고등학생 M (SD)	대학생 M (SD)	t
정	인간적 연약성	4.81 (.90)	4.59 (.92)	2.52*
	타인 배려성	4.74 (.77)	4.86 (.77)	-1.62
	다정 다감성	5.11 (.93)	5.16 (.89)	-.50
체 면	창피의식성 체면	5.17 (.96)	4.73 (1.04)	4.16***
	자괴의식성 체면	4.20 (.92)	3.87 (.92)	3.74***
	사회적식성 체면	4.81 (.85)	4.79 (.82)	.32
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3.52 (1.09)	3.29 (1.18)	2.09*
	심리스트레스	3.57 (1.24)	3.07 (1.17)	4.41***

주.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다른 변인간의 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정(情), 체면(體面)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정(情)의 하위변인 중 인간적 연약성, 다정 다감성 그리고 체면(體面)의 하위변인 중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의식성 체면이 모두 신체·심리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情)의 하위변인 중 타인배려성, 체면(體面)의 하위변인 중 사회격식성 체면은 의미있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情), 체면(體面) 하위변인들의 영향

1)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情) 하위변인들의 영향

표 6은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정(情) 하위변인들의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기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 stepwise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이다.

'정(情) 하위변인들 중 다정다감성 변인만이 신체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예언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은 .202로 나타났고, 설명변량은 4%였다.

2)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체면(體面) 하위변인들의 영향

표 7은 신체 스트레스에 대한 체면(體面) 하위변인들의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기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이다. 체면(體面) 하위변인들 중 자괴의식성 체면 변인만이 신체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예언변인의 설명변량은 3.9% 였다.

3)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情) 하위변인들의 영향

다음의 표 8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情) 하위변인들의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기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예언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인간적 연약성, 다정다감성, 타인배려성 순 이었고, 타인배려성은 부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이 갖는 설명변량은 인간적 연약

표 5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심리스트레스
정	인간적연약성	.16**	.30**
	타인배려성		
	다정다감성	.20**	.29**
체 면	창피의식성 체면	.18**	.39**
	자괴의식성 체면	.20**	.40**
	사회격식성 체면		

주. * $p < .05$, ** $p < .01$

표 6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	Beta	t	ΔR^2
신체스트레스	다정다감 ($R^2=.041$)	.252	.059	.202	4.283	.041***

** $p < .01$, *** $p < .001$

성이 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타인배려성 5%, 다
정다감성 3.6% 순이었다.

4)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체면(體面) 하위변 인들의 영향

다음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체면(體面) 하위
변인들의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예언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창피의식성,
자괴의식성, 사회격식성 순 이었고, 사회격식성은 부
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이
갖는 설명변량은 살펴보면 자괴의식성이 15.6%로 가
장 높았고, 다음이 창피의식성 4.6%, 사회격식성
1.5% 순으로 나타났다.

정(情), 체면(體面), 스트레스간의 구조적 관계
정(情), 체면(體面)의 하위변인들과 스트레스(신체
적·심리적)와의 구조관계를 밝히기 위해 LISREL의
경로모델(path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일반부합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 비표준부합치(NNFI: Non-Normed Fit
Index)와 원소간의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 구성요인 세 가
지 모두는 심리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신체스트레스에는 인간적 연약성과 다
정다감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 7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	Beta	t	ΔR^2
신체스트레스	자괴의식 ($R^2=.039$)	.242	.057	.198	4.223	.039***

** $p<.01$, *** $p<.001$

표 8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	Beta	t	ΔR^2
심리적 스트레스	인간연약	.382	.065	.285	5.885	.090***
	다정다감	.360	.065	.267	5.513	.036***
	타인배려	-.397	.076	-.249	-5.210	.051***
($R^2=.178$)						

** $p<.01$, *** $p<.001$

표 9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SE B	Beta	t	ΔR^2
심리적 스트레스	자괴의식	.358	.065	.273	5.502	.156***
	창피의식	.346	.062	.288	5.617	.046***
	사회격식	-.191	.066	-.129	-2.894	.015***
($R^2=.217$)						

** $p<.01$, *** $p<.001$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 GFI=0.92, AGFI=-0.14, NFI=0.72, NNFI=-1.88, RMR=0.1, CFI=0.71, $\chi^2=101.98(df=1, p=0.0)$.

정(情)의 하위변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가는 표준화된 경로계수(γ)는 .29($t=5.92, p < .01$)이었고, 다정다감성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27($t=5.23, p < .01$)로 나타났으며, 타인배려성은 -.25($t=-5.17, p < .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만이 각각 .11($t=2.07, p < .05$), .17($t=3.37, p < .01$)로 나타났다.

체면(體面)의 하위변인들과 스트레스(신체적·심리적)와의 경로분석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면민감성의 구성요인 세 가지 모두는 심리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스트레스에는 자괴의식성체면요인 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GFI=0.92,

AGFI=-0.14, NFI=0.76, NNFI=-1.47, RMR=0.1, CFI=0.75, $\chi^2=101.78(df=1, p=0.0)$ 였다.

창피의식성 체면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amma=.29$ ($t=5.65, p < .01$)였고, 자괴의식성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27($t=5.57, p < .01$), 신체스트레스에 .14($t=2.63, p < .01$)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격식성은 심리스트레스에 -.13($t=-2.91, p < .01$)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과 체면민감성 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경로분석결과 정 요인 중 인간적 연약성이 신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은 신체 및 심리스트레스 모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배려성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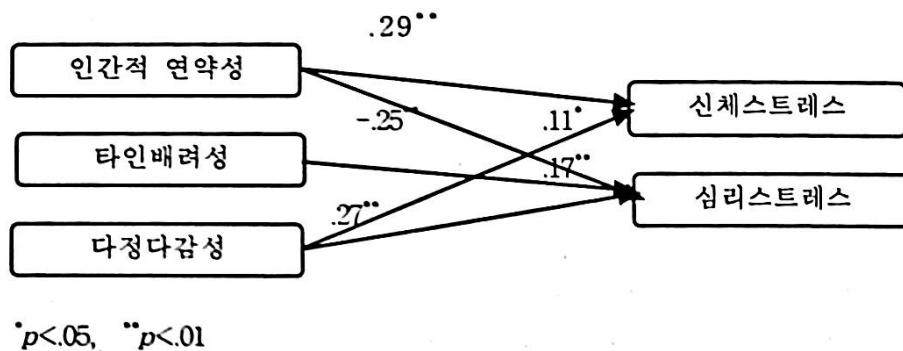


그림 3. 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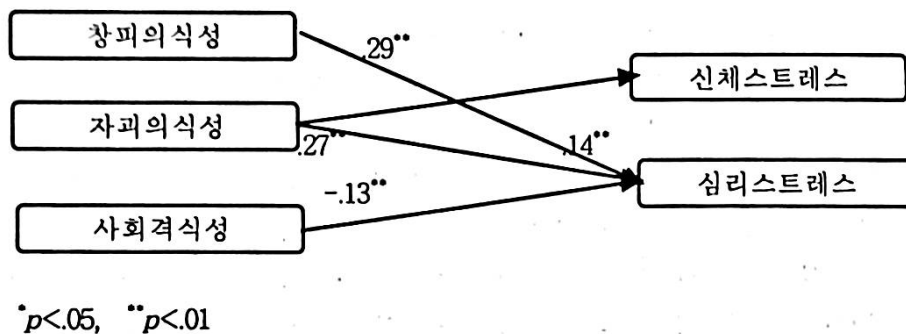


그림 4. 체면민감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면민감성 중 자피의식성만이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격식성 체면민감성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정(情)의 요인들 중 인간적 연약성과 다정다감성은 정(情)의 속성 중 정(情)을 느끼는 당사자의 정(情) 경험성향 즉 성격특질로서의 정(情)(최상진, 1997b)과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정(情)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그 만큼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情)의 또 다른 속성 중 타인배려성은 대상지향적 정(情)(최상진, 1997b)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 성숙 인격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정(情)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 예를 들면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감(이장주, 1998; 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a)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심리적으로 그 만큼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정든 대상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 사항이나 부탁을 들었을 때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지영, 1999). 이와 관련하여 손영미(1998)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심정 전달식 의사 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와 비추어 부족한 행동이나, 어긋나는 행동이나 태도, 반응을 했을 때 섭섭하고, 야속한 감정 즉 '심정상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지영(1999)의 연구에서도 정의 속성을 든든하고 의지가 되며(무거리감), 서로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우리성-일체감) 긍정적인 측면(고운정)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미운정)도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타인 민감성과 관련된 체면(體面)척도를 창피의식성 체면, 자피의식성 체면, 사회격식성 체면으로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체면의 하위 요인 중 창피의식성 체면과 자피의식성 체면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피의식성 체면은 신체적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 남에게 비취친 자신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창피의식성 체면)과 자신의 외적 행동을 보고 스스로 그러한 행동이 도리에 어긋났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자피의식성 체면)이 체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 격식성은 한국 사회에서 성숙인격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체면의 다른 요인들과 달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 격식성 체면은 한국 문화에서 자신의 지위, 신분, 상황, 사회적 가치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처럼 상대와 상황에 적합한 체면 행위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은 물론 타인의 체면까지 세워주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情)과 관련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적(依存的)인 관계 맺음보다는 보다 성숙된 차원에서의 정(情)관계 형성이 될 때 한국문화의 정(情)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이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체면(體面)과 관련해서는 타인에 대하여 의식하는 것이나 사회적 가치나 규범으로 인해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적절한 태도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주희(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서울: 집문당.
- 김지영(1999). 정의 구조, 행위, 기능간의 관계성 탐색: 미운 정 고운 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4). 한국가족의 문제에 대한 성평등적 시각의 소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08-119.
- 김열규(1986).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서울: 자유문학사.
- 김재국(1997). *한국은 없다*. 서울: 민예당.
- 김홍규(1989). 스트레스의 측정과 대처 및 극복. *건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 3 집, 53-81.
- 문성원(1990). 인지적 평가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순(1994). 유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고찰: 모형정립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제 31호, 123-142.
- 박수현, 최상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69-78.
- 손영미(1988). 심정적 대화상황 분석을 통한 심정심리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1993). 명상이 스트레스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주(1998). 정 상호작용 행위 유형의 문화심리학적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목(1989).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서울: 성원사.
- 임태섭(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욕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0호, 207-247.
- 임태섭(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진승범(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229-244.
- 최상진(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학술발표집*, 131-143.
- 최상진(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 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김기범(1998).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559-577.
- 최상진, 김기범(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 1-16.
- 최상진, 김기범(1999d). 한국문화적 심리치료 접근으로서의 심정치료.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1999a).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24-27.
- 최상진, 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 유승엽(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중앙대학교 제5권 1호, 107-132.
- 최상진, 유승엽(1996b).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377-388.
- 최상진, 이장주(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3.

- 최상진, 최수향(1990). 정(情)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1-9.
-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1999). 정(情), 체면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간의 관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 최창호(1993).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립(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Cannon, W. B. (1932). *The wisdom of the body*. New York: W. W. Norton.
-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Hawaii Press.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Kim, J-Y, & Kim, K. (1999, August).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K. (1999a, July). *The ShimCheong(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of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Vienna, July 4-8, Austria.
- Choi, S. C., & Kim, K. (1999b, August).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K. (1999c, August).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omy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U, C. (1992, May). *Multifaceted analyses of Cheomyon (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US.
- Cohen, F., & Lazarus, R. S. (1979). Coping with stress of illness. In G. C. Stone, F. Cohen & N. E. Adler (Eds.), *Health Psychology: A Handbook* (pp. 217-254). San Francisco: Jossey-Bass.
- Cox, T. (1991). *Stress* (9th Ed.). London: MacCmillan Education LTD.
- Eisdorfer, C. E. (1981). Introduction to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man & P. Maxim (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logy* (pp. 75-176). N.Y.: S.P. Medical & Scientific Books.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Lazarus, R. S. (1978). A strategy for research on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 hypertension. *Journal of Human stress*, 4, 35-40.
- Lazar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leiman & P. Maxim (Eds.), *Model for clinical psychology*. (pp. 177-214). New York: S. P. Medical & Scientific Book.
- Lazarus, R. S., Folkman, S., &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 outcom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Quick, J. C. & Quick, J. D. (1984). *Organizational stress and perspective Management*. McGraw-Hill.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Selye, H. (1985).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17-2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ffects of Cheong(情), Chemyon(體面)-Sensitivity on Stress

Choi, Sang-Chin

Choi, In-Ja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Cheong, Chemyon-sensitivity, and stress in Korean culture. In path analysis, the first observed variable named 'Human tenderness and weak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econd variable referred to as 'Having much Cheong' of Cheong have an influence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This result revealed that the more one is tender and weak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ving much Cheong, the more likely it is that one will be sensitive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Additionally, the more sensitive one is maintaining to social face (i.e., other-shamed Chemyon and self-shamed Chemyon), the more likely it is that one will be sensitive to psychological stress. In addition, self-shamed Chemyon-sensitivity also has an influence on physical stress.